



21세기를 향한 충청남도 정보화 정책의 추진전략

이 상 옥
(李相頊)

충청남도
정보통신담당관



- I. 서 론
- II. 정보화와 행정환경의 변화
- III. 지역정보화 추진실태와 여건
- IV. 정보화 정책의 추진전략
- V. 결 론

I. 서 론

최근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전은 오늘날의 사회를 정보화사회, 정보화시대라고 자연스럽게 이

야기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20세기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과 정보가 핵심요소가 되는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환경변화가 정보화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사회복지, 산업, 지역개발 등 각 분야별로 정보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의 전개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조직체의 이상,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¹⁾으로서 바람직한 미래상(future image)과 그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보화 정책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도구로 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1) 김형열, 정책학, 법문사, 1990, p.14.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척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이미 정보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정보와 지식이 근간이 되는 사회로 전이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조직이나 구성원들은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전반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 대처능력이 상실되어 미래의 발전적 이상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충청남도도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를 선도하고 도정이념인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 기본계획(1997),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1998)을 통해 정보화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계획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정보화 기반과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정보화와 행정환경의 변화

1. 정보화의 개념과 동향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정보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 등 정보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자국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동통신기술, 중형컴퓨터 등 일부 핵심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각종 정책이나 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현 위 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기본전략의 하나로 정보화를 선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강조하는 정보화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정보화'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동해 가고, 정보를 수집·처리·전달·이용하는 과정에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이 응용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널리 확산되어 가는 현상"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함께 '지역정보화'란 용어가 최근 들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정보화를 통하여 그 지역의 산업, 행정, 생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낙후지역의 정보화', '지역단위의 정보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화'의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수집·기록·전달수단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워드프로세서, 전화, 팩시밀리, CATV나 위성방송은 물론 LAN과 인터넷 등에 의한 정보의 전달수단이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다. 둘째, 정보처리 속도가 가일층 고속화

2)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7.

되어가고 있다. 셋째, 생산·축적·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정보의 수집, 처리, 축적, 전달 과정이 점차 동시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과정이 동시다발적이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의 확산이다. 국제적인 통신망으로서 인터넷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통신을 융합하는 체계가 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를 비롯한 산업, 교육, 문화, 금융, 보험, 쇼핑, 예약, 국제교류 등 사회전반의 교류에서 인터넷이 핵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96년 4천만명에 이르던 인터넷 사용자가 '97년말에는 1억명이 이용하였고 2005년에는 1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 정보화 정책도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보화와 행정환경의 변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행정과정의 개혁과 행정조직의 슬림화는 현재 가장 민감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에게 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 체제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보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의 생산성 향상 및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요구에 대응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처방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시에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행정현실이다.

세계는 인터넷을 통한 탈지역화, 탈국가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일반화로 민간에서는 전자상거래, 원격회의, 원격진료 등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전세계가 사이버상에서 움직이는 단일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사이버상의 한 행위자로서 행정행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행정도 정보화사회에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행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대응능력을 갖춘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일 것이다. 전자정부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행정정보 공동활용, 업무처리 절차개선, 전자적 행정정보 공개 등 행정의 정보화로 행정서비스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조직의 재구성, 인력절감 등 행정개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편의를

3) 미 상무부 정보기술 경제보고서, "부상하는 디지털 경제(The Emerging Digital Economy)", 1998. 4. 1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요약자료(1998. 4. 30).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정보화에 의한 개선을 통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정부는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체계적으로 접목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전자적 ‘알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정보사회의 행정모형이다. 즉 행정정보의 ‘전자적 관리’와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행정이념인 ‘효율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여 ‘정보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려는 실행정보모형이다”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 각국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개혁을 위해 각종 정부업무의 정보화를 국가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수행중에 있다. 그 성과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인력재편법(FWRA)」에 의해 '93년 기준 219만명의 12.5%에 이르는 30여만명을 '99년까지 줄이려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공무원의 1/3을 차지하는 감독관 5만 4천명을 줄임으로써 각종 규제도 더불어 사라지고 있다.⁵⁾

III. 지역정보화 추진실태와 여건

1.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현황

충청남도는 '97년 1월 22일에 '정보화 선언'을 통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의지를 대외에 선포하고 정보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선언은 지식정보사회를 향해 새로운 정보문화를 지방차원에서 먼저 창달하고 확산하여 21세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충남을 건설한다는 의지의 확인이라 하겠다. '97년 정보화 선언 이후 우리 도가 분야별로 추진했던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보화 관련 제도 및 기조정책 등 추진기반 정비이다. '97년 4월에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를 제정하고, 정보화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도 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방향 및 구상을 담은 「정보화 기본계획」과 신 SOC인 정보화 기반시설의 조기구축을 목표로 「GIS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는 물리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이다. 본청의 근거리통신망(LAN)을 '96년 4월에 구축하여 도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단계별 시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PC통신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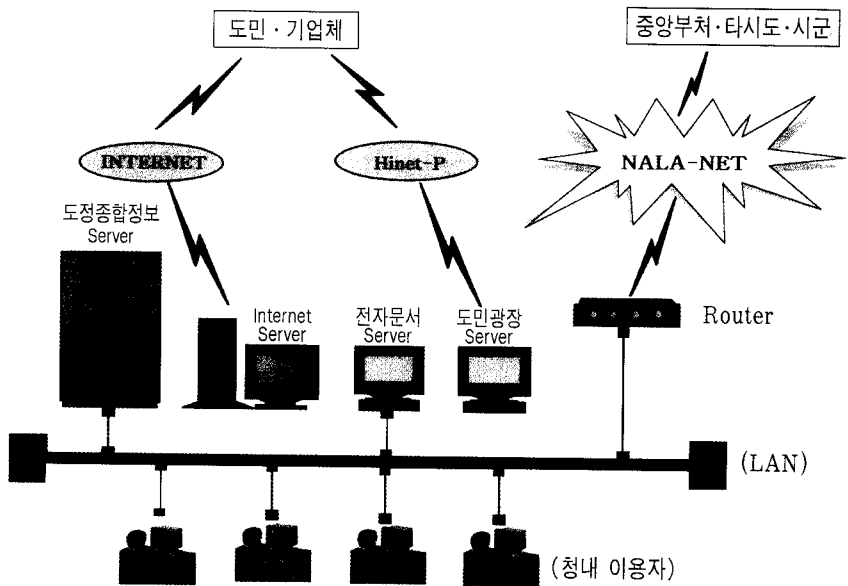
4) 충청남도, 전자기방정부 구현 전략, 1998.

5) 이천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처의 조직개편방안 및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정보통신정책”, 새정치국민회의 정보통신특별위원회, 「IMF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세미나」, '98. 1. 9에서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자료.

하는 '밝은충남 도민광장'을 통하여 대민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보급에 맞물려 충청남도의 각종 정보를 홍보하고 수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충청남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중에 있다. '98년 8월부터는 산업기술정보 유통을 촉진하여 기업체의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정보원과 매칭 펀드 사업으로 「충남 산업기술정보시스템」구축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 정보시스템의 구성도를 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etwork 상에서 행정 및 도민과



<그림 3-1> 충청남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기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 시책의 추진이다.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행정정보화 촉진을 위해 공무원 문서편집경진대회와 시군 행정전산업무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97년에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정보이용 기초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국내의 저명인사 특강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이용방법을 시연하는 정보화 순회교육을 전개하였다. '98년 6월에는 도민의 정보활용 능력 함양과 인터넷 이용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보문화의 달' 행사로 도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정책의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보화와 지역개발의 연계를 위해 백제의 역사와 유무형 문화재, 백제 역사재현단지 사업 등 백제 관련 각종 정보의 멀티미디어 DB화를 통해 인터넷에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의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백제의 문화적 자긍심과 역사, 교육, 산업·관광 자원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중소기업의 정보이용 활성화 방안과 이미 구축된 「산업기술정보시스템」의 확대방향 제시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산업정보시스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기업체 정보화 실태 및 욕구분석을 위해 PC통신, 인터넷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산업정보화 사업방향과 지원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BPR을 통한 행정혁신 모형 및 통합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21세기 「전자지방정부」구축 전략을 수립하여 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 공개까지 전과정을 체계화하고 행정정보 관리의 전략적 통합화로 정보공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2.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 및 여건

가. 공무원 정보화 수준 실태조사 결과

충청남도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과 활용정도를 파악하여 행정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실태조사⁶⁾를 토대로 공무원의 정보처리 능

력과 환경 여건을 기술하고자 한다.

[컴퓨터 활용 능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효 응답자 769명중 615명(80%)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정보화 촉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의 직원들이 워드프로세서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통신이나 인터넷 활용 여부에 대하여 컴퓨터 사용 가능자 615명 중 60%에 해당하는 369명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그 용도로서도 정보검색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를 입수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전자우편이나 대화방 등과 같은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갖기 위해 이용되는 사례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청내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무실에 전용 컴퓨터(PC)가 없다(41.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화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부족, 자신이 컴퓨터를 조작·이용할 수 있는 능력 부족, 정보화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일부는 관리자로서의 리더쉽(관심·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현장의 실무책임자로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6) '97. 9. 24~30(7일간) 본청내 실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조사, 1,100부를 배부하여 812부를 회수하고 유효 부수 769부를 대상으로 SPSS로 분석하였다.

다. 아울러 적절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정비
가 필요하다. 정보화 교육 수요부문에서도 PC통
신·인터넷에 대한 교육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나.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여건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이나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수행에 필요
한 재원의 확보와 정보기반시설의 투자가 필수적
인 요소이다. 충청남도의 '98년 2월 현재 전체 예
산 중 정보화 예산의 비중은 전국에서 하위인
0.13%로서 전북의 0.39%, 서울의 0.38% 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정보기기 보유현
황에서도 '98년 2월 현재 전체 직원수(시군구, 읍
면동 포함)에 따른 PC 보급률은 40.8%로서 인천
광역시의 69.0%, 전북의 43.0% 보다 낮은 전국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척도가 정보
화 수준의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열악한 환경은
부인할 수 없다.

충청남도 본청 내의 '98년 10월말 기준으로 PC
보급률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3.9%로
서 도 전체 보급률보다는 양호한 상태이나 1인
1PC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3-1> 충청남도 본청내 PC 보유 및 소요 현황

구 분	인 원	현 PC보유대수	보급률(%)	1인 1PC 소요량
계	915명	493대	53.9%	422대
사무관이상	206	117	56.8	89
직 원	709	376	53.0	333

3. 중소기업 정보화 실태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지역 기업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적 요인으로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감퇴되고 있다. 우리도가 조사한 결
과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열악한 기업구
조를 갖고 있어 단 한 대의 PC를 구입하는 것도

망설일 정도에 이른 기업도 상당수인 것이 현실
이다. 산업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897개 업체
중 정보화에 근접한 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몇 가
지 핵심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8, p.345.

8) '충남산업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897개 업체 중 PC통신 및 인터넷 URL을 보유한 43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98. 7. 22~7. 25(3일간) 훈련된 조사요원에 의한 직접 방문 조사 결과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현황]은 15.6%, PC통신 가입현황은 97.4%(복수응답 포함)로 단순히 일정액을 지불하는 PC통신에 치중하고 있다.

[인터넷의 구축목적]을 430개 업체 중 직접 면담 조사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및 제품홍보(마케팅), 거래업체 등 외부와 정보교류, 인터넷 상거래에 활용, 기업 내부 정보교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대부분 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의 홍보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의 가상공간을 통한 마케팅 수준]을 살펴보면 면담 조사한 170개 업체 중 114개 업체인 67%가 가상공간을 통한 마케팅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해 홍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통한 마케팅 수준은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작은 공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왔다. 즉 연도의 4자리를 두자리로 표기함에 따라 새로운 일천년이 바뀌는 2000년대에는 연도표기의 끝 두자리가 동일하게 취급되어 Y2k(Year 2 of Kilo)란 현상을 유발하였다. 이것은 시스템에 중대한 오류를 일으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

[컴퓨터 2000년 연도 표기문제 대응상황]을 살펴보면 해결을 완료한 기업은 면담 조사한 170개 업체 중 4.1%에 불과한 7개 기업, 작업중인 기업은 7.6%인 13개 기업, 당초부터 문제가 없다고 응

답한 기업은 12.9%인 22개 기업, 대책을 수립중이거나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68.2%인 116개 기업이나 되고 있어 그 대응상태는 열악한 실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정도나 마케팅 현황, Y2K 문제해결 등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실태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할 수 없겠지만 기타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충청남도의 산업정보화에 앞으로 많은 지원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IV. 정보화 정책의 추진전략

1.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정보화 추진

요즈음 정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매체로 인간은 좀더 편리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편익성과 복지를 누리기 위해 많은 역기능의 해소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균등 수혜 등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화 정책은 전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상호 연계된 종합적인 정보화에 대한 추진이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단순히 생활의 편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인식 및 해결수단으로

서의 역할과 모든 복지를 지역간 균등하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정보화를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정보화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의 홍보와 상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만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 소재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기업구조가 취약하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정보시스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이미 구축된 중앙, 유관기관, 지방의 정보시스템들을 최대한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시키는 '정보소재안내시스템'과 '정보중계시스템'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두 시스템들을 최대한 활용한 '전자상거래(CALS/EC)'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둘째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야기된 Y2K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문제 파악이 미흡하고 자체적인 대응력도 미미한 실태이다.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2000년 문제에 대해 단순히 연도를 표시하는 날짜를 2자리에서 4자리로 확장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누구도 2000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개인, 기업,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 위협이 되고 있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위협요인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는 모든 지역이 정보화의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수혜의 원칙 아래 특성화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충청남도는 농촌, 도시, 산촌, 어촌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되어 있는 복합지역이다. 따라서 정책담당자는 지역개발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화 소외지역인 농어촌 마을 단위 중심으로 시장, 유통, 기상, 행정, 생활정보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마을 IPC 공급을 통한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시군별 시범지역 분석을 토대로 '9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이며,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정보화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풀뿌리 정보화'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업무혁신과 연계된 전자지방정부 구현

가. 전자지방정부 구현 전략 추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전자정부'를 발표한 이래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정부란 정보사회형 정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행정내부의 효율성과 대민 정보서비스의 질을 극대화시키려는 혁신적 행정모형이다. 이러한 전자정부를 지방의 여

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전자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이라는 정보사회의 이상과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추진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행정정보화 추진시 컴퓨터 등의 H/W와 개발 TOOL 등의 S/W에 치중한 나머지 업무 재설계와 절차의 간소화, DB의 연동성, 업무의 정보화에 대한 연계 부족 등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채 추진되어 왔다. 둘째는 중앙부처의 계획과 지방정부의 연계가 부처별로 산만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계획의 연관관계가 부족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중복투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중앙정부에서는 표준화를 통해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자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지원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S/W 사용이나 사업을 강요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부족하여 유사한 시행착오를 유발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기본구상으로는 제1단계로 BPR의 추진이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통업무와 고유업무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서 정보화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BPR을 통해서 조직내 업무처리의 단순화와 정보화로 행정내부의 효율성을 꾀하고 대민서비스의

신속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단계는 '통합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다.

행정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의 결재, 유통, 저장, 공개까지의 전과정을 체계화하여 행정문서의 디지털화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현 계획이다. 이 시스템 구현은 전자결재시스템, 그룹웨어, 정보공개시스템의 세 가지로 구축하되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여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은 「'98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와 연계된 행정정보화 추진

정부에서는 모든 자치단체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군구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 및 광역시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농촌·환경 등 시군구 21개 전업무를 종합정보화 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밑그림으로 하여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에 의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시에도 상호 호환성을 고려한 연동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현재 4개 시범 시군구에서 시험적용 및 보완을 거치고 있으며 9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000년 이후에는 전국에 확산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추진일정은 <표 4-1>과 같다.

〈표 4-1〉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일정

단 계	추진내용
1 단계 시범사업 추진단계 '98. 1 ~ '9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 선정(4 개 시군구) : '97. 12 ○ 선행사업(BPR, 업무분석, 기본설계) : '98. 1 ~ 5 ○ 10개 시스템 개발사업 : '98. 9 ~ '99. 8
2 단계 시범사업 확대단계 '99. 9 ~ 20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사업(BPR, 업무분석, 기본설계) : '99. 9 ~ 12 ○ 11개 시스템 개발사업 : 2000. 1 ~ 2000. 12 ○ 1단계 업무 보완개발 및 보급확산
3 단계 전국 확산 적용단계 2000 ~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업무 보완개발 및 적용화 : 2001. 1 ~ ○ 전 시군구에 기반환경(H/W, 통신망 등) 구축 : 2000. 1 ~ ○ 21개 전업무를 보급 확산하여 실업무 적용 : 2001. 1 ~

※ 자료 : 행정자치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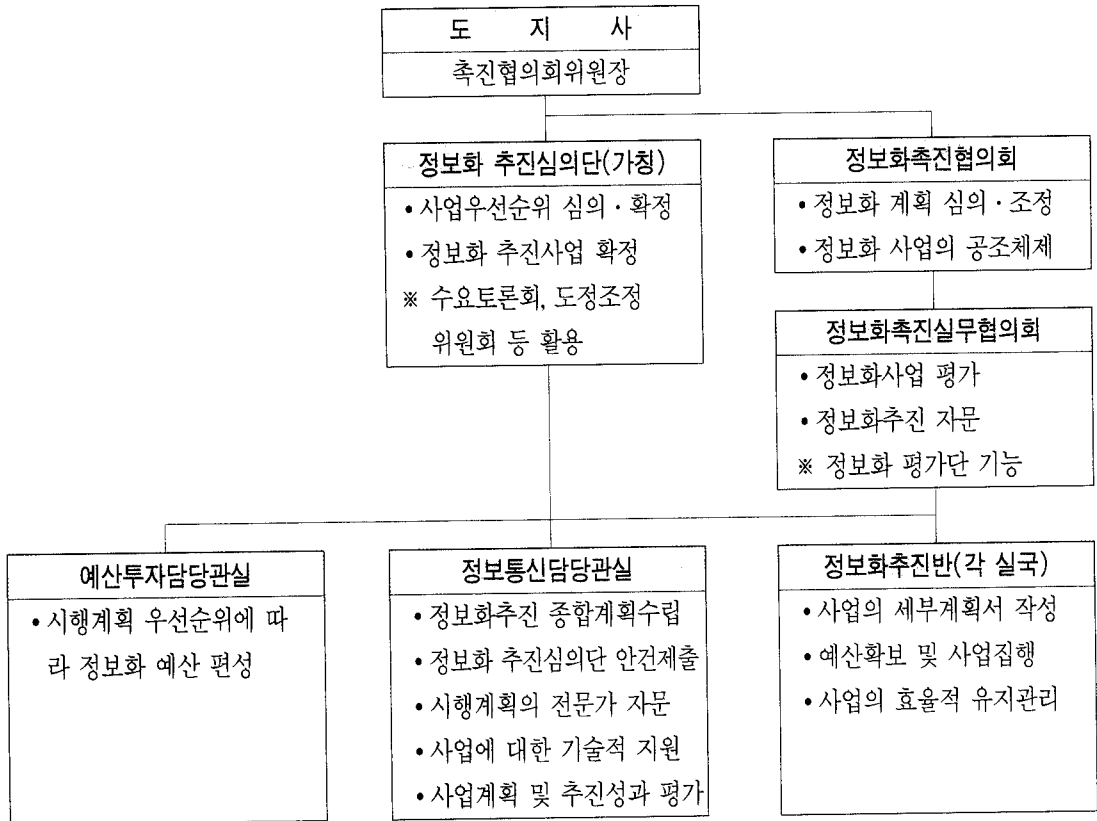
다. 정보화 사업의 평가 및 추진체계 정비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이 지난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중점을 둔 나머지 사업의 사전 평가나 사후 평가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정보화 추진체계를 [그림 4-1]과 같이 재정립하여 정보화사업을 선정하고 그 목표와 과정, 결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환류하여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사업집행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이 과제는 내부 전문가들이 구체적 지침을 작성중에 있다. 이 지침은 청내 및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3. 인터넷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인터넷은 불어나는 정보의 양 못지 않게 이용자의 확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보화도 웹(WEB) 기반으로 구축되어 종합적인 정보 공유체계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적 사고를 갖고 분야별 정보서비스 구축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농정, 산업, 관광, 문화, 행정 등 각분야가 상호 연동되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소개안내, 중계시스템으로 타 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습득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원스톱(ONE-STOP), 논스톱(NON-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그림 4-1〉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체계

우리라 기대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곧 자원이다.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들을 잘 분석하고 치장하여 정보로 가공시키면 그것이 곧 재화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란 훌륭한 도구를 잘 이용하면 정보의 자원화, 문화의 상품화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산업자원화로 이끌 수 있

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문화의 고장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역점 시책으로 인터넷의 종합서비스화와 더불어 역사문화의 자원화를 계획하고 있다. 백제의 역사, 문화, 예술, 건축 등을 GIS와 멀티미디어 기법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백제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관

광·산업자원화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서비스 주제에 따라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 〈관광지리정보시스템〉, 〈특산물지리정보시스템〉 등 3부문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충청남도 사업으로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찬란한 고대 백제문화의 종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 향상과 교육, 학술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정보활용 교육과 정보 마인드 확산

정보화 정책이라고 말하면 전문적인 색채가 짙은 영역으로 치부하기 쉬우며, 이러한 환경에 기인하여 정보화 정책과정이나 결정에서 관련 조직이나 개인, 관리자에게 목표설정의 타당성과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 정책의 왜곡된 인식을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객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 설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조직의 상호 협조에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정보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보화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 마인드 확산 측면에서 정보화 정책의 전개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다. 즉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화 인력양성이라 함은 전문인력보다는 폭넓은 사고와 기본소양을 갖춘 구성원의 확산을 말한다. 공공조직에서 지금까지 전개해 왔던 인력양성은 정보수요를 전산조직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전문가 양성프로그램과 기타 행정요원의 일시적 기능확보에 치중하여 왔다. 이것은 정보화란 공동목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였으며,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구성원들은 정보화에 대한 소외를 받게 되었다. 둘째는 정보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핵심요소는 정보마인드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조직내 개개의 구성원은 정보화란 용어에 일단의 저항감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전제시와 필요성, 그리고 마우스만 다루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정보화 편의성과 함께 지속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전개하여 개개의 업무를 정보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즉 책임과 관심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인식의 전환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정의 평가결과를 인사과에 단계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직원 전체 중 자격증 소지자, 개인별 컴퓨터 활

용능력, 희망 교육 등 컴퓨터 활용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수준별·기간별로 발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보활용 취약 인원을 대상으로는 장기 교육을 유도하고, ITQ(한국생산성본부), 워드프로세서 등 정보관련 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밖에 4·5급 공무원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 확대와 인터넷·PC통신 및 도정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 본청 내에 있는 상설 교육장에서는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 관련 민간시설에 위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공무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활용 능력에 도달토록 목표를 제시하여 자기의 정보화 수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조직내의 상대적 비교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정보활용 능력을 확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모색할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 업무소양에 기초한 인력관리의 한 방안을 제공하여 정보화 수준의 객관성 확보 및 충분한 학습 기회와 평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각 개인이 직접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 1인 1PC 보급이 조속히 필요하며, 근거리통신망(LAN)등 정보화 기반이 먼저 구축되어야만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V. 결 론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 등 정보화

선진국가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신무역라운드로 지정하고 무관세지대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있다. 국가 및 지방에서도 이러한 세계의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도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화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정보화 정책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여 정보화 저변 확산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

충청남도에서는 정보화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보활용 교육과 정보마인드 확산에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확산에 부응하는 전략으로서 인터넷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자동화와 주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고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과거 산업사회의 역기능을 두려워하여 농경사회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처럼 정보사회는 산업사회 다음의 인류발전 단계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왔다. 지식정보사회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마인드와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조직, 지역 등 사회전반의 합의를 도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정보화의 시대적 상황을 지방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도의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열린충남

참고문헌

- 김형열, 정책학, 법문사, 1990.
-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 1997. 12.
- _____,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1998. 8.
- _____,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및 운영방안, 1998. 10.
- _____, 산업정보시스템 활성화 전략, 1998. 11.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7.
- _____, 국가정보화백서, 1998.
-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범사업(선행사업) 완료보고서, 1998. 6.